

# 혁신도시 지방세 올해 71억... 발전기금은 0원

### 공동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난항 나주시 "시설관리비 연 150억 위원회 2023년 이후 설치"를 성과분석 통해 합의 이끌어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가정 기금관리(심)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동혁신도시 조성의 한 축인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나주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사안은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관리위원회 구성은 광주·전남 시도 상생 의제 중 하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은 여전히 제대로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22일 광주시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납부하는 지방세 등을 재원으로 한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2006년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 간 체결한 개발운영 성과 공유협약을 근거로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입장이다.

특히 광주시는 내년 3월까지 합의가 이루어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나주시는 지방세 감면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이후 위원회 설치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혁신도시 내 도로, 가로 등, 공원, 상하수도 등 연간 유지 관리비용이 150억원 이상 든다는 점이 주요 반대 이유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2014년 9억800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70억4000만원, 올해는 71억원을 예상한다. 여기에 기금에 포함할 지방세 세목을 놓고도 이견이 적지 않다. 광주시 등은 대부분 세목을 포함하자는 입장이지만 나주시는 가급적 줄이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아직 성과물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 설치는 다소 빠르다"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도의회 간담회, 광주전남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분석 등을 통해 나주시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 전력거래소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사랑 성금 전달



전력거래소 성금 기부 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는 지난 21일 빛가람혁신도시 본사에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력거래소 김홍길 기획본부장과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했다. <전력거래소 제공>

## 혁신도시협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 조속 처리"

전국 10개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35% 이상 의무 채용토록 하는 법안을 조속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이창희 진주시장) 도시인 경남 진주시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령은 권고사항이라서 현실적으로 인력 확대 채용에 한계가 있다"고 요구했다. 실제 신규직원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3년 5%, 2014년 10.2%, 2015년 12.8%에 그치고 있다. 진주시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목적대로 지역 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토보안심사위원회 법안 심사과정 중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주장했다. 진주시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통과가 어려울 경우를 고려해 "정규직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의무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김치로 중국 입맛 사로잡는다 aT, 32가지 중국요리책 발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지난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유명 요리학교인 '상하이공상기술학원'과 연계해 '김치를 활용한 중국요리 레시피북' 발간 기념 행사를 했다. 이 레시피북에는 우리 김치를 활용한 32가지 중식 퓨전요리, 이에 대한 조리법과 한국김치의 역사, 영양적 가치 등이 담겨 있다. 상하이공상기술학원의 교수진뿐만 아니라 유명 중식당 및 5성급 호텔 메인 셰프 등 중국 각지의 요리를 대표하는 우수 조리사 8명이 함께 참가하여 레시피를 개발했다. 전채와 메인, 후식 등 우리 김치를 활용한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요리 방법을 중국 요리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중국 최초의 김치 레시피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간행사는 중국 각지의 외식·요리사협회 대표, 유명 셰프, 식품전문가, 한국식품 수입바이어와 현지 언론매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 시연과 한국 전통문화 공연, 각 셰프별 김치요리 레시피 소개영상 방영 및 요리 시식 등으로 진행했다.



aT는 지난 19일 도쿄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대일수출상담회를 열고 한국 21개 업체의 농수산물식품을 소개했다. <aT 제공>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중중국 김치가 그동안 유망·잠재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혀있었다"면서 "지나해 말부터 중국 위생당국의 위생기준 완화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번 레시피북 발간을 비롯하여 대(對)중국 김치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치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자연발효식품인 김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열처리 된 중국 파오차이(泡菜)'의 위생기준(100g당 대장균군 30마리 이하)을 적용했다. 이후 중국 정부가 비멸균형 발효식품에 대한 대장균군 제한 규정을 제외하는 위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오광록기자 kroh@

## aT, 농식품 일본 수출 상승세 계속

### 도쿄 수출상담회 21개 업체 참가·업무협약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이하 aT)는 한국 농식품의 연말 대일 수출확대를 위하여 일본 도쿄에서 1:1수출상담회, 유력바이어와의 MOU체결, 종합관측전 개최, 바이어 간담회 등의 통합마케팅을 했다. 대일 농식품 수출은 한류 붐이 정점이었던 2012년 이후 23억8900만 불에서 2015년에는 18억3200만 불로 줄어들며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엔고 및 한일관계 완화 등으로 수출이 회복세에 있어 11월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3.4%가 증가한 17억4000불을 달성한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이러한 대일 수출의 증가세를 지속시키고, 연말연시를 맞이하

여 일본 내에서 한국식품의 새로운 수요 창출과 수출확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이번 통합마케팅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19일 도쿄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대일수출상담회를 열고 한국의 농수산물 분야 21개 업체의 홍보제품, 알로에음료, 과자류, 소스류, 면류, 초코파이, 쌀 가공품, 수산제품 등 현지진출 유망상품을 소개했다. 사전 초청한 수입바이어 50개사 70여명과 1:1매칭 상담을 벌여 약 2700만불의 상담실적도 올렸다. 상담회에 참석한 현지 대형 유통업체 이온리테일(주) 한 바이어는 "한국 상품이 웰빙 제품이면서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 보니 일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유망 상품이 생각보다 더 많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한국산 고려인삼, 유자차, 조미김 등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일본 현지 건강식품 전문벤더 1위 기업 알프렛사헬스케어(주)와 MOU체결 행사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현지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유망품목 공동개발 및 입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aT 여인홍 사장은 "최근 몇 년간 하락세였던 대일 수출이 연화질상 및 한일관계 완화 등으로 회복세에 있으며 이번 수출상담회와 MOU를 통한 신규 유망 상품진출 확대를 통해 향후 일본 소비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식품이 더욱 사랑받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식품부와 aT는 지속적으로 일본의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집중적인 판촉홍보 행사 전개, 적극적인 거래알선, 뉴미디어 홍보 등을 실시하여 대일수출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한전KPS, 지역민들과 김장 나누기

한전KPS(사장 최외근)는 연말을 맞아 지난 21일 나주시 목사골시장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직접 담근 김치 250박스를 지역노인분들과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사진> 이날 봉사활동에는 한전KPS 최외근 사장을 비롯해 강인규 나주시장, 이민준 전라남도의원, 엄마순푸드 황영미 대표, 나주신문 박선재 사장 등이 함께 참가해 직접 김장을 버무리는 시간을 갖고, 나주시와 영산포초등학교, 노인복지관, 이화영아원 등에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눠줬다. 최외근 사장은 "연말을 맞아 나주시의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마련되어 더욱 의미있는 봉사활동이 될 것"이라며 "한전KPS 한마음봉사단의 '나누는 사랑, 하나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처럼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들과 모두가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나주시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친 한전KPS 한마음봉사단은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1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 2016.12.05 ~ 2016.12.31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본사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www.novita.co.kr

<p><b>선물1</b> <span style="color: #e91e63;">반송</span> 참 편한 비데 <b>Comfort</b> NEW</p> <p>발매 BO-A443(설치비 포함) / BO-A433(설치비 포함) <b>279,000 / 249,000</b> +브레이크 파워 액티브 5종</p>	<p><b>선물2</b>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속형 비데 특가</p> <p>BO-A420T/AS(설치비 포함) / BO-A423T(설치비 포함) <b>159,000원 / 159,000원</b></p>	<p><b>선물3</b> 새 비데를 할인가로! 비데 보상 판매</p> <p>BO-A423S(설치비 포함) <b>219,000원</b> *티사 제품 가능</p>
---	--	--

**노비타**송년맞이  
고객감사**SALE**

구입문의 | 비데프라자 (062) 515-1144